

한국 개신교 교회건축의 평면형태 변천 연구

- ‘남녀유별’ 관념과 회중석의 남녀 위치를 중심으로 -

이 희 준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수료)

윤 인 석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주제어 : 개신교 교회건축, 평면형태, 시각 차단물, 남녀유별, 우남좌여

1. 서론

20세기의 대표적인 문화 신학자 폴 티리히(Paul Tillich)는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며,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¹⁾라는 유명한 명제로서 종교와 문화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다. 이 말은 ‘종교는 그 시대의 문화라는 형식을 통해서 표현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유교적 사상이 생활윤리를 지배하던 조선후기에 수용된 한국의 개신교는 유교적 문화의 형식으로 표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한국의 개신교는 유교적 문화의 실체이며, 유교적 문화는 개신교를 담고 있는 형식인 것이다. 이 말은 한국 특유의 유교적 종교·문화 상황하에서 형성된 개신교의 토착화(土着化) 현상, 그리고 서로 다른 두 문화체계 즉, 개신교와 유교의 접촉으로 문화요소가 전파되어 한국만의 독특한 개신교 문화양식으로 변화되는 문화접변(文化接變) 현상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폴 티리히는 ‘교회는 때로는 지도적 역할을 하면서 문화적 변화에 참여한다’²⁾, ‘교회생활의 형식

은 종교적 실체가 문화를 가능하게 만든 것처럼 문화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교회와 문화는 서로 옆에 나란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내부에 있다.’³⁾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의 예배방식이나 교회건축의 형태가 그 사회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며, 교회는 반대로 문화에 영향을 미쳐 변화를 주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교회와 문화는 이원론적 관계가 아닌 서로 의존적이며 상호작용을 하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교문화 사회였던 조선후기에 전래된 개신교의 변천모습을 고찰해보면,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유교적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흔적들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사고와 생활방식을 지배했던 유교적 관념, 그리고 그러한 관념들이 개신교의 영향을 받아 변화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동길은 ‘한국인에게 있어서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유교적이다’⁴⁾라고 단언하고 있으며, 유동식은 유교적 사상은 현대 한국인에게까지 영향을 주어 한국인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궁극적인 것을 제시해 주었다⁵⁾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유교적

1) ...religion is the substance of culture, culture is the form of religion. (Paul Tillich, *Theology of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p.42)

2) Cultural changes occur by the inner dynamics of culture itself. The Church participates in them, sometimes in a leading role... (Paul Tillich, 앞의 책, p.50)

* 이 논문은 2005년도 한국두뇌21사업에 의해 지원되었음.

3) ...For its forms are created by culture, as its religious substance makes culture possible. The Church and culture are within not alongside, each other. (Paul Tillich, 앞의 책, p.51)

4) 김동길, 「한국의 전통종교와 기독교의 미래」, 『현대종교』, 현대종교문제연구소, 1982, p.58

경향은 폴 클레인(Paul Clane)이 ‘한국의 크리스찬은 교회에 출석하는 유교인⁶⁾’이라고 말 할 정도로 한국의 개신교인들한테서도 나타나는 경향이다. 이렇게 유교적 관념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한국인에게서 지속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한국적 문화’로서 한국인 특유의 유전인자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화는 공유되고, 학습되며, 축적적이고 체계를 이룬 가운데 변화되는 속성을 가진다⁷⁾고 하였다. 어느 시대나 한 민족의 전통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시대의 종교·사상·가치관 등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새로운 문화와의 접촉이 일어나면 오랜 시간동안 유지해오던 전통 관념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조선시대 주택의 공간배치를 보면 남성공간인 사랑채를 주택전면에 배치하고 폐쇄적인 여성공간인 안채와 구분하였는데, 이것은 유교의 ‘남녀유별·남존여비’ 사상이 건축에 적용된 모습이다. 이러한 유교적 사상은 개항 이후 특히, 개신교 문화가 전파되면서 서서히 약화되며, 개신교 교회건축의 형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신교가 처음 전래될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남녀가 한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으며, 함께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남녀 사이에 시각차단물을 설치해서 남녀간에 서로 보이지 않도록 하였고, 출입구도 구분하였다. 그러나, 서구의 문화 특히, 개신교 수용과 ‘평등사상’의 전파는 ‘남녀유별’ 사상의 약화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으며, 서서히 시각차단물이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영향으로 남녀를 구분했던 두개의 출입구는 하나로 통합되고, 평면형태에서는 ‘남녀유별’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렇게 한국 개신교 교회건축의 평면형태가 변천되는 과정에는 유교적 관념의 변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개신교 교회건축 평면형태의 변천에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임광성⁸⁾, 홍순명⁹⁾, 김성한¹⁰⁾ 등의 연

구가 있는데, 장방형·‘ㄱ’자형·‘+’자형·‘T’자형·타원형·원형·부채꼴형 등으로 유형을 분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변천의 근원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흡한 형편이다.

또한, 한국 개신교 교회건축의 특징적인 형태인 ‘ㄱ’자형 평면에 관해서는 이명관¹¹⁾, 정창원¹²⁾ 등의 연구가 있는데, ‘ㄱ’자형 교회의 출현 원인을 유교의 영향과 한국교회의 급성장에 의한 증축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ㄱ’자형 평면에서 남녀의 위치관계를 대지와 진입로의 관계로서 설명하고 있으나 명확한 해답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개신교 교회건축 특히, 평면형태의 변천 과정을 ‘남녀유별’ 관념 변화의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평면형태의 변천 과정에는 시대적 배경, 사회·경제적인 여건, 건축기술 등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 ‘유교적 관념’은 한국인에게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한국적 문화’이며, 가장 핵심적 유전인자로서 한국의 개신교 교회건축은 이러한 유교적 문화형식의 틀 안에서 표현되고 변화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평면형태의 변천 과정을 5단계로 분류해 보았으며, 남녀의 위치관계는 개신교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들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변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고 건축사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교회건축을 발굴, 조사하여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필요한 경우 기존에 발표된 관련논문들과 각종 문헌·사진자료 등에서도 참고하였다.

8) 임광성, 「한국 현대 개신교회건축의 예배공간 평면특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2002

9) 홍순명, 「한국개신교 교회건축의 유형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박사논문, 1991

10) 김성한, 「개신교 교회건축의 변천과정과 한국 개신교 교회건축의 특징」, 서울대 석사논문, 1988

11) 이명관, 「‘ㄱ’자형 교회건축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7권 4호, 한국건축역사학회, 1998년 12월, pp.113-130

12) 정창원, 「한국미션건축에 있어서 개신교 개척선교사의 활동과 영향에 관한 연구 - (1) 그레함 리의 건축활동을 중심으로 -」, 「건축역사연구」 제13권 2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4년 6월, pp.57-70 ; 「ㄱ’자형 교회건축의 탄생기원과 전개양상에 관한 역사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제20권 11호, 대한건축학회, 2004년 11월, pp.175-182

5) 유동식, 『한국 종교와 기독교』, 대한기독교서회, 1986, p.88

6) 정준근, 「유교가 한국 개신교 신앙에 끼친 영향」, 장로회 신학대 석사논문, 1994, p.38

7) 한상복 외 2인, 『문화인류학』, 한국방송대출판부, 1983, pp.64-70

2. 유교와 개신교의 남녀관계 및 방위관계 비교

2.1 유교

(1) 남녀의 관계

개신교가 수용될 당시 조선사회는 유교의 ‘남녀유별·남존여비’ 사상을 인간의 생활윤리 중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규정하던 철저한 가부장제적 성차별 사회였으며, 여성들의 행동을 단속하는 ‘내외법’을 법제화하여 남녀의 접촉을 규제하였다.

내외법은 성리학에서 설명하는 우주적인 질서에서 기원하는 것으로서, 『주역(周易)』의 「서괘전(序卦傳) 하편」에는 ‘천지가 있는 연후에 만물이 있고, 만물이 있는 연후에 남녀가 있고, 남녀가 있는 연후에 부부가 있고, …¹³⁾’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천지와 만물처럼 남녀의 구분도 자연의 질서에 의해 생겨난 것이며, 남녀의 구분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정해졌고 기본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부녀자들의 교육을 위해 편찬한 여성 교훈서 중 『내훈(內訓)』 부부장에는 ‘남편은 아내의 하늘’이라고 말하면서, 남편은 아버지처럼 아내가 예(禮)로써 공경하여 섬기고 순종할 대상으로 부부간의 상하질서를 설명하고 있다.¹⁴⁾

또한, 언행장에는 다음과 같이 남녀간(內外)에 관한 예(禮)의 기준이 언급되어 있다.

남자와 여자는 섞여 앉지 아니하고, 햇대와 시령을 같이 쓰지 아니하고, 수건과 빗도 같이 쓰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천하게 주고받아서도 안된다.¹⁵⁾

『계녀서(戒女書)』에는 남녀간의 자유로운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성에 대한 행동을 다음과 같이 규제하고 있다.

사랑에 손님이 오면 혹시 엿보지 마라. 엿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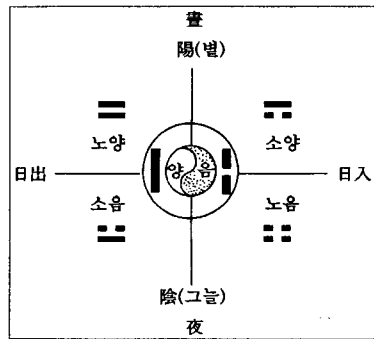
것은 그런 불편한 행실이 없으니 부디 마음먹지도 마라. … 분명한 얼굴 모습뿐만 아니라 의복도 밖의 사람이 보이게 하지 말고. …¹⁶⁾

부인 출입이 중대하니 아니하여도 될 일이거든 출입 말고 본가부모 생신이나 대사(大事)를 지내거나 하거든 다니고 쓸데없는 출입은 하지 말아라. 친구나 일가집에서 혼인을 지내거나 상사(喪事)가 나거나 하여 마지못하여 가야 되거든 가되 깊숙이 안쪽으로 앉고 밖을 내다보지 마라. 대사(大事)때 내외분별(內外分別)하기가 어려우니 부디 삼가하여라.¹⁷⁾

또한, 『주자가례(朱子家禮)』에서는 남녀가 일곱 살이 되면 함께 자리하지도 않고 함께 식사하지도 않는다¹⁸⁾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남녀를 구분하고 여자들의 물리적·사회적 공간을 통제하며 행동을 규제했던 조선시대의 내외법(內外法)은 ‘남존여비’ 사상의 결과였으며, 남자와 여자의 공간을 완전히 분리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우주적인 자연질서로 정해진 것이므로 거역해서는 안되며 가능하지도 않은 것이었다.

(2) 방위(좌우)의 위계



〔그림 1〕 음양의 방위

(출전 : 김석진, 『(大山)周易講解(上經)』, 대우학당, 1994)

유교의 예법에서는 방위(좌우)의 위계를 중요시 하였는데, 『주자가례』의 ‘여섯 살에 방위를 가르친다¹⁹⁾’라는 말에서 그러한 사상을 엿볼 수 있으며, 남자와 여자의 방위를 구분하고 위계를 정하고 있다.

13) 有天地然後 有萬物, 有萬物然後 有男女, 有男女然後 有夫婦, …(남동원, 『주역해의Ⅲ-서괘전·계사상전·계사하전·설괘전·잡괘전』, 나남출판, 2001, p.40)

14) …, 夫乃婦天, 禮當敬事, 如其父焉, …, 唯知順從, …(昭惠王后 韓氏, 『內訓』, 육완정 역, 설화당, 1986, pp.79-80)

15) 男女不雜坐, 不同櫛, 不同巾櫛, 不親授(昭惠王后 韓氏, 앞의 책, pp.23-24)

16) 송시열, 『우암선생 계녀서』, 정음사, 1986, p.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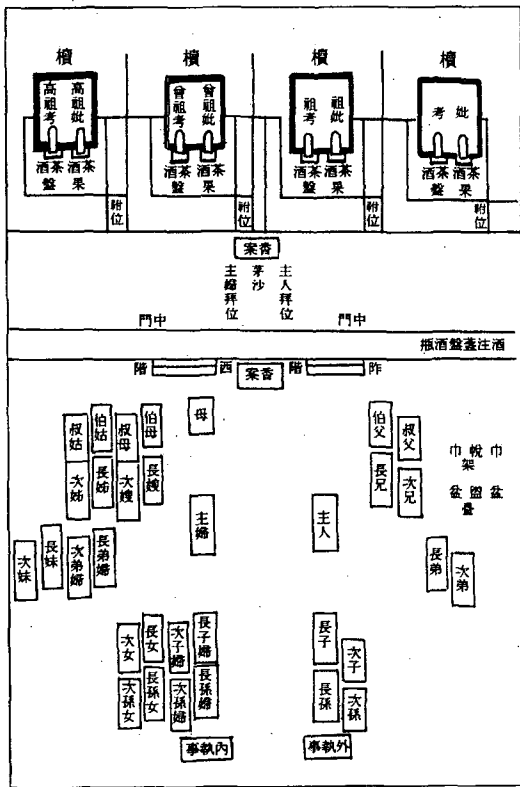
17) 송시열, 앞의 책, p.42

18) 주희, 『주자가례』, 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p.111

19) 주희, 위의 책, p.111

남녀의 방위를 좌남우여(左男右女) 즉, 남자는 좌측, 여자는 우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남쪽이 정면이므로 좌측은 동쪽을 가리키고, 우측은 서쪽을 가리키게 된다. 이러한 규정은 남녀를 위계적으로 질서지우는 차등적 구분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양(陽)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출(日出)하는 방향인 동쪽을 숭상하여²⁰⁾ 위계상 동쪽이 서쪽보다 상위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음양(陰陽)사상에서 기원한 것으로, [그림 1] 에서처럼 음양사상에서는 아침(日出)은 陽(남자)이 근본이 되고, 저녁(日入)은 陰(여자)이 중심이 된다.

이러한 사상은 다음의 내용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사당에 오르고 내려올 때는 주인(主人)은 동쪽 계단을 이용하며, 주부(主婦)는 서쪽 계단을 이용한다.'²¹⁾, '식사를 할 때도 남자는 왼쪽에 앉고 여자는 오른쪽에 앉는다.'²²⁾라고 남자와 여자의 방위를 구분하고 위계를 정하고 있다.



[그림 2] 正至朔日俗節出主櫨前家衆叙立之圖

(출전 : 주희, 『주자가례』, 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또한, [그림 2] 는 정조·동지·초하루·보름 등의 절기에 참배하는 사람들이 서있는 위치를 나타내는 그림인데, 좌남우여(左男右女)의 개념 그리고 각각의 위치에서 북쪽일수록, 중앙부에 가까울수록 높은 위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2.2 개신교

(1) 남녀의 관계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오는 창세기를 보면 태초의 남자와 여자가 나온다. 즉, 남자와 그를 돕는 여자(아내)의 창조이야기인데, 다음 구절에서 이 둘 사이의 상호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²³⁾

여기서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표현한 것은 남자보다 여자가 열등한 입장에서 종속적인 위치에서 돕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대등하며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즉, 동등한 차원의 동반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모두 만든 것도 '피조물적 동등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⁴⁾

그리고,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표현한 것도 남자가 우월하다는 의미 보다는, 갈빗대는 해부학적으로 인간의 가장 소중한 내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뼈라는 점에서 '여자는 남자의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녀의 평등관계는 '남자'와 '여자'라는 단어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여자'는 '남자'라는 단어에 여성형 어미를 붙여서 만든 것이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단지 성적 특성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⁵⁾

그러나, 이러한 '남녀평등'의 창조 질서는 여자의 범죄(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깨지게 된다. 여자는 범죄의 형벌로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되며,²⁶⁾ 남자는 여자보다 우월적인 위치가 된다.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지어 준 것²⁷⁾은 이 같은 변화를 상

23) 창세기 2장 20-23절

24) 이회학,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행동 -창세기1-11장의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2003, pp.109-110

25) 이회학, 위의 책, pp.112-113

26)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창세기 3장 16절)

20) 주희, 위의 책, p.56

21) 주희, 위의 책, p.62

22) 주희, 위의 책, p.99

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개신교의 창조질서에서 보여주는 근본사상은 남녀의 관계가 종속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동등한 관계, 동반자적 관계, 성적 차이가 있어 서로 도와주는 의존적인 관계였으나, 선악과 사건이후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위계적으로 남성이 우월한 종속적인 관계로 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방위(좌우)의 위계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 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음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²⁸⁾

위 내용은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의 일부이다. 이 글이 쓰여질 당시의 이스라엘은 19세기 말의 조선후기와 마찬가지로 남성중심 문화의 가부장적 사회였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창조질서의 근본사상은 ‘남녀평등’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사도가 쓴 서신의 내용은 당시의 문화적인 관점으로 해석되어진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의 관계를 ‘평등적 관계’보다는 ‘종속적 관계’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남녀 사이에 위계를 구분하는 관념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²⁹⁾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찌니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³⁰⁾

위 글에서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를 위하여 여자가 지음을 받았으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엄연히 ‘남성우월’ 사상이 표출된 내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상은 초기 한국교회의 예배모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경에서는 오른쪽이 중요한 위치로 표현되고 있는데, 초기 한국교회에서 강단의 오른쪽에 남자신도들이 앉은 것³¹⁾과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³²⁾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여…³³⁾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야.³⁴⁾

이렇게 성경에서는 오른쪽이 예수가 앉아 있는 곳으로, 복 받을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 피난처로 표현하고 있으며, 위계상 왼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곳임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설교대를 강단의 오른쪽에 두는 경우도 이러한 사상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3 소결

앞 절에서 살펴본 유교와 개신교의 남녀관계와 방위(좌우) 위계를 비교,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남녀의 관계는 유교에서는 ‘남녀유별·남존여비’ 사상에 의해 불평등적이고 종속적인 관계로서 이러한 사상이 19세기 말의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 개신교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평등적 관계로 창조되었으나, 아담과 여자의 범죄 이후에는 그 형벌로 여

27)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 하였으니…(창세기 3장 20절)

28) 고린도전서 14장 34-35절

29) 고린도전서 11장 3절, 8-9절

30) 에베소서 5장 21-25절

31)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의식은 설교와 성찬으로 볼 수 있는데, 모두 강단을 중심으로 행해진다. 곧, 예배의식의 중심은 ‘강단’으로 볼 수 있으며, 초기 한국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강단의 오른쪽(강단에서 회중석을 바라볼 때 오른쪽)에 남자신도들이 앉았다.

32) 골로새서 3장 1절

33) 마태복음 25장 33-34절, 41절

34) 누가복음 20장 43절

자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남녀의 관계는 위계상 '남성우월'적인 종속적 관계로 변하게 된다.

또한, 유교에서의 좌우(左右) 위계는 음양사상에 기초하고 있는데 제사의식 때 남자가 서 있는 방위를 해가 뜨는 위치 즉, 동쪽(왼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상에 의해 좌남우여(左男右女)의 원칙이 지켜지게 된다. 반면에 개신교에서는 예수가 앉아 있고, 복 받을 사람들이 앉아 있는 오른쪽을 왼쪽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표 1] 과 같다.

[표 1] 유교와 개신교의 남녀관계 및 방위위계 비교

내용 \ 사상	유교	비교	개신교
	남녀관계	남녀유별	-
남녀관계	남존여비	↔	남녀평등(참조당시)
		≡	남성우월(범죄이후)
좌우위계	좌를 중요시함	↔	右를 중요시함

(↔ : 반대, ≡ : 유사)

3. 개신교 교회건축 평면형태의 변천

19세기 말 한국에 전래된 개신교는 당시의 사회적 규범이었던 유교의 '남녀유별·남존여비' 사상과 충돌하게 된다. 당시의 유교적 관념으로는 여자는 폐쇄적이고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해야만 했으며, 외간남자한테 의복조차 보여서는 안되는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남자에 종속된 존재였다.

개신교의 '남녀평등' 사상은 이러한 여자들에게 자아를 깨닫게 해주었고, 여자도 남자와 대등한 존재라는 인식을 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내려온 유교적 전통관념은 쉽게 깨지기 힘들었으며, 여자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쉽지 않았다. 그래서, 여자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 즉, 평면형태에 '남녀유별' 사상을 적용한 다양한 방법들이 모색되었다.

이러한 평면형태는 개신교 사상이 전파되고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유교적 관념이 약해짐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데, 그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유교적 경향이 아주 강한 단계로, 남녀가

함께 예배드리지 않고 남녀유별 관념에 따라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는 단계이다.

2단계는 유교적 경향이 강한 단계로, 개신교의 남녀평등 사상이 전파되면서 유교적 '남녀유별·남존여비' 관념에 조금씩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남녀가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지만, 남녀를 앞뒤로 분리하거나 또는 좌우로 분리하고 그 사이에 시각 차단물(회장 등)을 설치하여 서로 보이지 않게 하였으며, 출입구도 남녀를 분리하였다.

3단계는 유교적 경향이 조금 강한 단계로, '남녀유별' 관념이 약해지면서 남녀사이에 설치됐던 시각 차단물이 사라지는 단계이다.

4단계는 유교적 경향이 약한 단계로, 구분되었던 남자와 여자의 출입구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출입구의 남녀구분이 사라지게 되는 단계이다. 그러나, '남녀유별' 관념의 모습은 남아있어 회중석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 앉았다.

5단계는 유교적 관념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단계로, 남녀가 회중석에 섞여 앉아 예배를 드렸으며, 장방형 평면 이외에 다양하고 새로운 평면형태가 등장하는 단계이다.

이렇게 한국 개신교 교회건축 평면형태의 변천과정을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판단 기준은 평면형태에 적용된 '남녀유별' 관념의 정도이다. 관념의 정도는 [표 2] 에서처럼 '회중석의 남녀구분', '시각 차단물의 설치유무', '출입구의 남녀구분' 등 3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표 2] 개신교 교회건축 평면형태의 변천단계 비교

단계 \ 내용	남녀 회중석			시각 차단물	출입구 구분
	분리	앞뒤구분	좌우구분		
1단계	○	-	-	-	-
2단계	-	○	-	-	○
	-	-	○	○	○
3단계	-	×	○	×	○
4단계	-	×	△	×	×
5단계	-	×	×	×	×

(○ : 有, × : 無, △ : 미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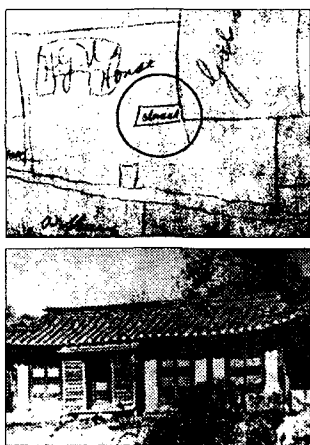
3.1 유교적 경향이 아주 강함(1단계)

이 단계는 남녀가 서로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인데,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남녀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되 남녀가 시간차를 두고 서로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다.

이 같은 방법들은 남성 중심의 봉건주의 체제하에 ‘남녀유별’이라는 유교적 관념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19세기 말의 한국사회는 봉건적 사회질서가 서서히 붕괴되는 시기였지만 여전히 그 지배하에 있었다.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1885년 주택을 개조해서 첫 예배를 드린 정동제일교회의 초기모습에서 볼 수 있는데, 남자들은 아펜젤러 선교사의 집에서, 여자들은 스크랜튼 여사의 집과 후에 세워진 이화학교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된다.³⁵⁾



[그림 3] 언더우드 사택 사랑방(원안) 배치도와 사진
(출전 : 윤경로, 『새문안교회100년사(1887-1987)』, 새문안교회 역사편찬위원회, 1995)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인 새문안교회도 1895년에 서대문 안에 지어진 예배당에서 비로소 남녀가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남자들은 1885년에 구입한 정동의 언더우드 사택 사랑방([그림 3])에서, 여자들은 기포드 부인 집과 독립문 근처의 모화관 부근에 있던 여성 집회소에서 따로 모여 예배를 드렸다.³⁶⁾

또한, 한 공간에서 남녀가 서로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연동교회에서 볼 수 있는데, 1896년 기보 선교사 주택을 개량해서 남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는 남녀가 예배시간을 달리하여 모였다.³⁷⁾

이처럼 남녀를 공간적 또는 시간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은, ‘남녀유별’이라는 유교적 문화의 바탕 위에 개신교가 수용되면서 나타나는 맨 처음 단계로, 개신교의 ‘남녀평등’ 사상이 아직 유교적 문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때 예배방법에 있어서 유교적 경향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단계의 교회건축은 예배만을 위한 독립된 건물로 지은 것은 아니었고, 선교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던 기존의 전통한옥 건물구조를 거의 변경하지 않은 채 내부만 예배형식에 맞게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건축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독립된 교회건축이 나타나기 전의 과도기적 형태로 볼 수 있다. 평면형태는 대부분 전통한옥의 ‘一’자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출입은 전통한옥에서처럼 장변방향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3.2 유교적 경향이 강함(2단계)

이 단계부터는 남녀가 함께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한다. 남녀가 따로 예배를 드리면서 생기는 불편, 선교차원의 문제점, 그리고 늘어나는 교인수 때문에 좀 더 큰 규모의 예배당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예배당으로 사용하던 집을 개량하거나,³⁸⁾ 더 큰 독립된 교회를 건축하면서 남녀가 함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

남녀가 함께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당시 봉건적 제도하의 유교적 ‘남녀유별’ 사상이 무너져 가고 있음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같은 모습은 개신교의 ‘남녀평등’ 사상이 점차적으로 유교적 문화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 그러한 인식의 전환은 미미한 것이었으며, 전통적 가부장제 규범하의 여성들은 생활공간이 폐쇄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때는 여자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가는 것은 전통적 사

35) 벨엘예배당 발전위원회 편, 『하늘 사명의 전당, 벨엘예배당 -정동제일교회 문화예배당 수리보고서-』, 정동제일교회, 2002, p.20

36) 윤경로, 『새문안교회100년사(1887-1987)』, 새문안교회 역

사편찬위원회, 1995, pp.114-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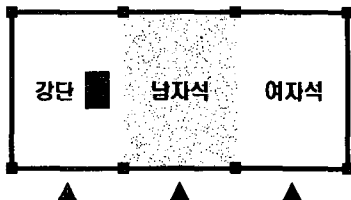
37) 김성한, 앞의 논문, pp.64-65

38) 연동교회는 1896년 기보 선교사 집을 개량하면서부터 남녀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고춘섭 편, 『연동교회100년사』, 연동교회, 1995, p.111)

회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배의 방법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안됐다. 때문에, 남녀를 구분하기 위한 방법들이 강구되었는데 처음에는 남녀를 앞뒤로 구분하였고, 나중에는 남녀를 좌우로 구분하게 된다.³⁹⁾

(1) 남녀 앞뒤 구분

남녀를 앞뒤로 구분하는 방법은 남녀를 좌우로 분리하기 전에 잠깐 나타났던 과도기적 방법으로 '一'자형 내지는 장방형 평면을 취하고 있으며, [그림 4] 처럼 앞쪽에 남자가, 뒤쪽에 여자가 앉게 되고, 출입은 장변방향에서 하게 된다. 강단에서 가까운 앞쪽이 뒤쪽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한 자리였는데,⁴⁰⁾ 이러한 모습은 개신교의 '남성우월' 사상과 유교의 '남존여비' 사상이 적용된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남녀사이에 '시각 차단물'을 설치하지 않아 남녀가 서로 보였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적 관념에 어긋난 방법이었다. 그래서, 남녀를 좌우로 배치하고 그 사이에 시각적 차단물을 설치하는 방법이 나타나게 된다.



[그림 4] 남녀 앞뒤 구분 평면 개념도

1896년부터 남녀가 동시에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연동교회의 경우는, 남자와 여자의 좌석을 앞뒤로 구분하고 출입구도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였다. 그리고, 설교자의 출입구를 별도로 만들었는데,⁴¹⁾ 이것은 기능적인 해결과 함께 목회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하였으며, 교회의 평면형태에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목회자의 위계적 구분이 나타나게 된다.

(2) 남녀 좌우 구분

39) 홍순명, 앞의 논문, p.77

40) 유대 회당의 평면도를 보면 앞자리에는 장로석이, 뒷자리에는 일반 회중이 위치하였다.(정시춘, 『교회건축의 이해』, 발안, 2000, p.96)

41) 김성한, 앞의 논문, pp.64-65

남녀를 좌우로 구분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평면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장방형 평면이고 두 번째는 'ㄱ'자형 평면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은 모두 [그림 5] 에서 보는 것처럼 시각 차단물을 설치하여 남녀가 서로 보이지 않게 처리하였다.

이 시각 차단물은 유교문화의 사회에 서양의 개신교 문화가 수용되면서 나타나는 한국 개신교 교회 건축의 변천과정에서 큰 특징적 요소라 할 수 있는데, 설치유무와 그 높이의 변화는 당시 사람들의 '남녀유별' 관념의 변화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자료라 할 수 있다.



[그림 5] 남녀 사이에 설치된 휘장(1898년)
(출전 : 『하늘 사명의 전당, 벨엘예배당 -정동제일교회 문화재예배당 수리보고서-』, 정동제일교회, 2002)

정동교회의 예를 보면 시각 차단물은 처음에는 2미터 정도의 칸막이가 사용되다 휘장으로 바뀌었는데, 필요에 따라 이 휘장을 걷어 예배당 전체를 한 공간으로 사용했다고 하며,⁴²⁾ [그림 5] 에서 보면 남녀의 좌석배치는 강단의 오른쪽(강단에서 회중석을 바라볼 때)에 남자가, 왼쪽에 여자가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右男左女'의 모습은 다른 여러 모습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림 6] 을 보면 가운데 앉아 있는 목사의 오른쪽에 남자아이들이 서 있으며, 왼쪽에는 여자아이들이 서 있다. 이 같은 '남녀유별' 한 모습은 교회의 외부 광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림 7] ㉠을 보면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는 여자 신도들이 당시의 풍습에 따라 쓰개치마를 쓴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들이 예배당 안에서 그대로 적용돼 [그림 7] ㉡처럼 목사의 오른쪽에 남자가, 왼쪽에 여자가 구분되서 위치하게 되고 그 가운데 휘장이 설치된다.

42) 벨엘예배당 발전위원회 편, 앞의 책, p.49



[그림 6] 창천교회 초가 예배당(1907년)

(출전 : 『자유와 빛으로 -정동제일교회 역사화보집-, 정동제일교회, 1997)



㉞



㉟

[그림 7] ㉞ 쓰개치마를 쓴 여자신도들(1910년경)

㉟ 남녀 신도석 사이의 휘장 그림

(출전 : 『사진으로 보는 연동교회 110년사』, 연동교회,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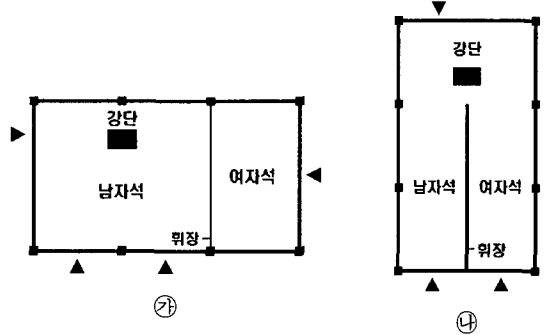
이렇게 당시의 개신교인들은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이라는 방위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남녀가 구분되어 앉는 것은 유교적 ‘남녀 유별’ 사상의 영향이었으나, 남자가 오른쪽에 앉고 여자가 왼쪽에 앉는 ‘右男左女’의 모습은 유교적 관념이 아닌 개신교적 방위 위계의 관념이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장방형 평면

장방형 평면형태는 출입방법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그림 8] ㉞에서처럼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장변측에서 출입하는 경우로, 이 경우는 남녀석의 위치를 ‘좌우’ 개념보다는 ‘주(主)와 부(副)’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예배당의 중심(主)이 되는 부분에 남자석이 배치되고, 여자석은 건물 바깥부분(副)에 자리잡게 된다. 또한, 여자석 출입구는 장변측의 남자석 출입구와 구별되어 단변측에 위치하게 되고, 여자석이 보이지 않도록 휘장이 설치된다.

그러나, 이렇게 서구 개신교의 예배의식을 한국의 전통건물 구조로서 수용하고자 했던 장변측에서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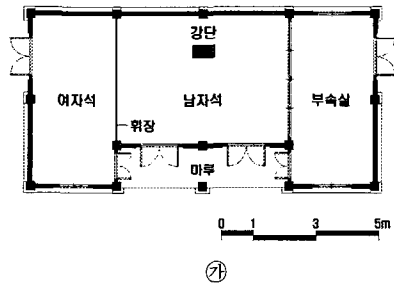
입하는 방법은, 예배의식상 불편하고 급격히 증가하는 신도들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림 8] ㉟처럼 단변측에서 출입하는 구조가 나타나게 된다.



[그림 8] 남녀 좌우 구분 평면 개념도

①-1 장변방향에서 출입하는 유형

이 경우는 1895년에 건축된 8칸 규모의 기와집 소래교회에서 볼 수 있는데, [그림 9]에서 보는 것처럼 전통한옥형태의 건물로서 건물 장변측에 설치된 마루를 통해 예배실로 들어가면 남자석과 강단이 나오며, 강단 우측에는 휘장으로 가려진 여자석이 위치하였다. 또한, 강단 좌측에는 부속실이 있는데 선교사의 거처로 사용되었다.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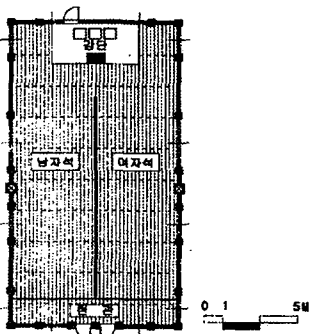
[그림 9] 1895년에 건축된 기와집 소래교회 추정 평면도(43) 및 정면 사진

(사진출전 : 『두고 온 교회, 돌아 갈 고향 -북한교회 역사자료집-, 한들출판사, 2003)

43) 총신대 양지캠퍼스에 복원되어 있는 소래교회를 바탕으로 사진과 관련 기록, 교인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추정하였음.

이 유형은 앞에서 봤던 ‘남녀 앞뒤 구분 배치’에서 한 단계 발전한 것으로, 건물의 장변측에서 출입하는 것은 같지만 남녀의 배치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우선, 예배당의 중심이 되는 중심부분(主)에 강단과 남자석을 배치한 다음, 여자석은 강단 우측 건물 바깥부분(副)에 배치하였는데, 이러한 배치형태와 여자석에 휘장을 설치하여 보이지 않도록 한 것은 ‘남성우월’ 사상이 적용된 모습이다. 또한, 남녀 출입구는 각각 따로 설치하여 동선을 구분하였다.

①-2 단변방향에서 출입하는 유형



[그림 10] 전주 서문교회 장방형 추정평면도(1905년)
 (출전 : 이명관, 「'ㄱ'자형 교회건축에 관한 연구」, 원광대 석사논문, 1999)

이 유형은 1905년에 지어진 전주 서문교회의 평면에서 볼 수 있는데, [그림 10] 을 보면 남녀의 좌석 배치는 강단의 오른쪽에 남자석, 왼쪽에 여자석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녀사이에는 서로 보이지 않도록 휘장을 설치하였다. 출입구는 예배당의 중심축과 일치하도록 단변측에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다.

② ‘ㄱ’자형 평면

‘ㄱ’자형 평면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존의 장방형 예배당을 ‘ㄱ’자 형태로 증축한 경우와 두 번째는 처음부터 ‘ㄱ’자 형태로 건축한 경우이다. ‘ㄱ’자형 평면 역시 유교의 ‘남녀유별’ 관습을 건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었으며, 이 형식에서도 남자는 강단의 오른쪽에 앉고 여자는 왼쪽에 앉는 ‘右男左女’의 관념이 대부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남녀가 서로 보이지 않도록 ‘ㄱ’자로 꺾이는 모서리와 강단 사이에 휘장이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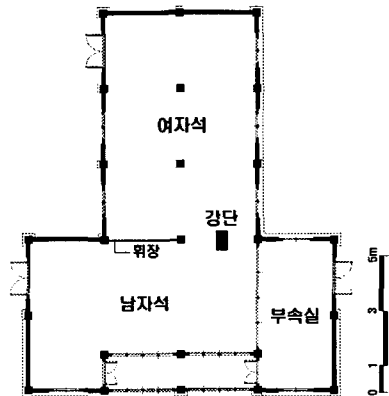
처음에는 남자석의 크기가 여자석보다 컸는데, 그

이유는 당시 사회의 ‘내외법’으로 인해 여자들의 외출입이 어려워져 상대적으로 예배당에 모이는 여자 신도들의 수가 적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개방화가 계속되고, 개신교의 ‘남녀평등’ 사상 그리고 여성교육에 의한 여성의 지위향상 등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내외법’을 약화시켜 여자들의 외출입을 좀 더 자유롭게 해주었고, 이후 여자 신도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남녀 회중석의 크기가 비슷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ㄱ’자형 평면은 서구의 개신교 예배의식을 전통적 건축형태⁴⁴⁾로 해결하고자 했던 과도기적 모습이었다. 이 방법은 ‘남녀유별·남성우월’ 사상, ‘증가하는 신도들의 수용’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었으나, 예배의식상 불편한 점과 ‘남녀유별’ 관념의 식퇴로 인해 점차 사라지게 된다.

②-1 ‘ㄱ’자형으로 증축한 경우

‘ㄱ’자형으로 증축하는 것은 신축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신도들을 수용하기 위한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기존에 있던 건물에 직각 방향으로 덧붙이는 방법이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ㄱ’자형태의 모습을 띄게 되며, 기존 예배당의 회중석은 남자석이 되고 증축된 부분은 여자석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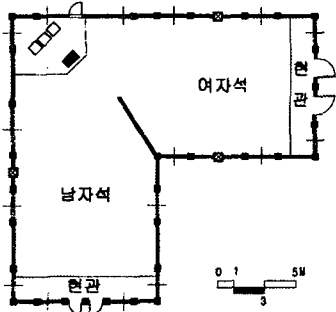
[그림 11] 증축된 ‘ㄱ’자형 소래교회 평면도(1896년)⁴⁵⁾
 (복원된 소래교회 실측 평면도 - 총신대 양지캠퍼스 소장)

[그림 11] 을 보면 1896년에 증축된 소래교회

44) 황해도, 경기도, 충청도 등 중부지방의 전통민가에서 이러한 ‘ㄱ’자 형태의 주택이 사용되었다.(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97, pp.80-95)

45) 휘장과 남녀석의 위치는 소래교회 복원시 소래교회에 다녔던 교인들에 의해 확인됨.

는, 전체적인 형태는 'T'자형이지만 기능적인 면에서 볼 때 예배실 내부는 'ㄱ'자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남자석과 여자석 경계에 휘장이 설치되어 있다. 그런데, 강단 왼쪽에 남자석, 오른쪽에 여자석이 위치하여 '右男左女' 관념과 반대가 되는데, 이 경우는 기존 회중석을 주(主), 증축된 부분을 부(副)로 해석해야 된다. 이러한 남녀석의 위치관계는 개신교가 점차 한국에 뿌리를 내리면서 '右男左女'의 모습으로 굳어지게 된다.



[그림 12] 'ㄱ'자형 전주 서문교회 추정평면도(1911년)
(출전 : 이명관, 「'ㄱ'자형 교회건축에 관한 연구」, 원광대 석사논문,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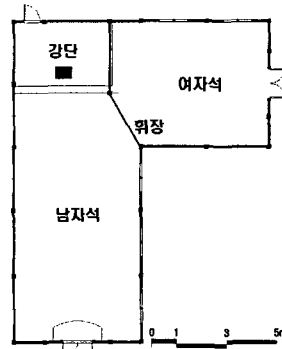
1911년에 증축된 전주 서문교회 평면도 [그림 12] 를 보면 소래교회처럼 기존 회중석은 남자석, 증축된 부분은 여자석이 위치하고 있으나, 좌우 관계는 소래교회와는 반대로 강단 오른쪽에 남자석, 왼쪽에 여자석이 위치하여 '右男左女'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사이에 휘장이 설치되어 있다. 강단은 'ㄱ'자로 꺾이는 모서리에 위치하여 남자석과 여자석의 중앙을 향해 바라보고 있다.

②-2 'ㄱ'자형으로 신축한 경우

증축을 통해 '남녀유별·남성우월' 사상, '증가하는 신도들의 수용' 등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던 'ㄱ'자형 평면은, 새로 건축되는 교회들에 영향을 주어 처음부터 'ㄱ'자 형태로 건축하는 교회들이 나타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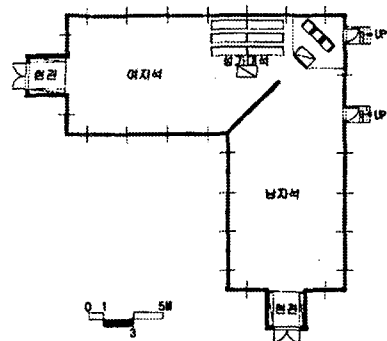
[그림 13] 은 1908년에 'ㄱ'자형으로 신축된 김제 금산교회 평면도로 강단은 남자석을 향해 배치되어 있으며, 강단 왼쪽에 여자석이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남녀석 사이뿐 아니라 강단과 여자석 사이에도 휘장이 설치되어 있어 목회자도 여자 신도들을 직접 볼 수 없었으며, 여자석의 크기가 남자석에 비해 작았다. 이러한 모습들은 당시에 '남녀유별' 관념

이 강했다는 것과 여자 신도의 수가 적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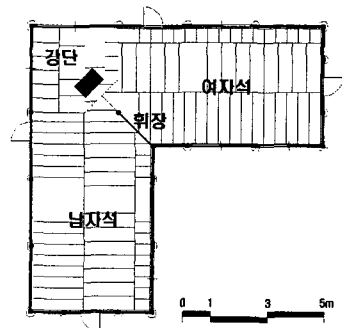


[그림 13] 김제 금산교회 평면도(1908년)

그러나, 후에 지어진 군산 구암교회나 익산 두동교회는 남자석과 여자석의 크기가 거의 같으며, 강단도 남녀의 중앙을 향해 배치되어 있고, 휘장도 남녀 회중석 사이에만 설치되어 있다.([그림 14], [그림 15]) 이러한 모습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여자 신도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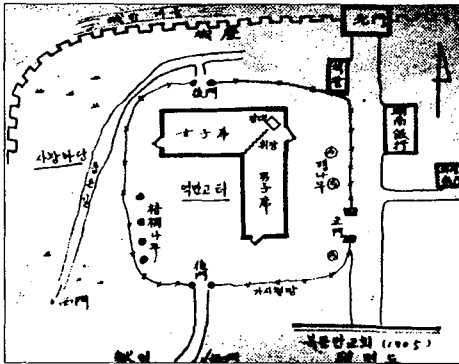


[그림 14] 군산 구암교회 추정 평면도(1919년)
(출전 : 이명관, 「'ㄱ'자형 교회건축에 관한 연구」, 원광대 석사논문, 1999)



[그림 15] 익산 두동교회 평면도(192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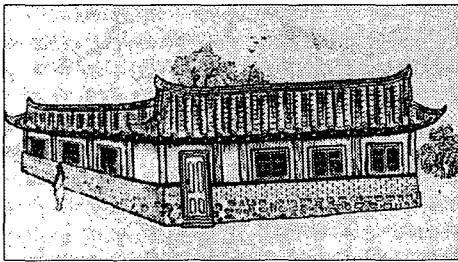
그런데, 군산 구암교회([그림 14])의 경우는 남녀석의 위치가 다른 일반적인 교회들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강단의 왼쪽에는 남자석, 오른쪽에는 여자석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개신교의 방위 위계 관념보다는 전통주택의 배치방법에서 찾을 수 있다. 전통주택에서 남자의 공간인 사랑방이 주출입구(大門)와 가까운 곳에 배치되는 것처럼, 주출입구의 위치에 따라서 남녀석의 위치를 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극히 일부에서 나타났던 예외적인 경우로 생각된다.



㉔



㉕



㉖

[그림 16] ㉔ 광주 북문안교회 배치도(추정)
 ㉕ 광주 북문안교회 사진(1910년)
 ㉖ 광주 남문밖교회 조감도(1919년)

(출전 : ㉔, ㉕ : 『광주제일교회90년사』, 광주제일교회, 1994
 ㉖ : <http://www.motherchurch.or.kr/museum/>)

기존 논문들에서 예외적인 사례로 다뤄왔던 ‘광주 북문안교회’의 경우는, 후대에 배치도를 잘못 그린 것으로 판단된다. 1905년도의 모습을 추정해서 그린 [그림 16] ㉔ 배치도를 보면 정면에서 가까운 쪽에 남자석이 위치하고 있는데, 강단의 왼쪽 부분이다. 그런데, 1910년에 찍은 사진 [그림 16] ㉕를 보면 배치도와는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사진에서 정면에 보이는 부분이 강단의 오른쪽으로 남자석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자 신도들이 대부분 그 앞에서 있으며 열려있는 문에서도 있는 남자들의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남자 신도석의 지붕높이가 여자 신도석의 지붕보다 높은 것도 당시의 ‘남성 우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1919년에 북문안교회를 뜯어다 똑같은 구조로 그대로 지은(46) 남문밖교회 조감도 [그림 16] ㉖를 보면 사진과 일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기억에 의해 그려진 추정 배치도의 남녀석 위치가 바뀐 것임을 증명해주고 있다.(47)

3.3 유교적 경향이 조금 강함(3단계)

이 단계는 ‘남녀유별’ 관념이 약해지고 ‘내외법’의 규제도 약화되면서, 남녀 회중석 사이에 설치됐던 시각 차단물(회장)이 철거되는 단계이다. 그러나, 남자를 오른쪽, 여자를 왼쪽으로 구분했던 ‘右男左女’ 관념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회장이 철거된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정동제일교회는 1908년 또는 1915년(48) 연동교회는 1919년(49) 전주 삼례교회·군산 개복동 교회는 1920년(50) 전주 서문교회는 1921년(51)에 각각 회장이 철거됐다고 전해지는데, 이 같은 기록으로 미루어볼 때 1910년경부터 서서히 사라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회장이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은 높이 1m 정도의 낮은 칸막이를 사용하여 남녀간의 시각을 어느 정도 차단했던 것으로 보여진다.(52)

또한, 이 시기에 새로 지어지는 교회건축은 ‘장방

46) 광주제일교회 역사편찬위원회 편, 『광주제일교회90년사』, 광주제일교회, 1994, pp.329-330

47) 광주제일교회100년사 편찬위원회에서도 배치도의 잘못을 발견하고, 『광주제일교회100년사』 편찬시 수정 예정임.

48) 벨엘예배당 발전위원회 편, 앞의 책, p.49

49) 고춘섭 편, 앞의 책, p.184

50) 김용호 편, 『한국장로교100년』, 목양사, 1984, p.42

51) 전주서문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편, 『전주서문교회 100년사』, 전주서문교회, 1999, p.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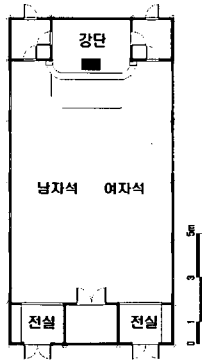
52) 김성한, 앞의 논문, p.79

형' 평면이 주를 이루게 된다. 'ㄱ'자형 평면이 나타나게 된 원인이 '남녀유별' 관념 때문이었는데, 그러한 관념이 퇴색되면서 예배의식에 부합되고 좀 더 건축이 편리한 장방형 평면의 교회건축이 건립되게 된다. 이 시기의 장방형 평면에서는 남녀 회중석 사이에 시각 차단물이 설치되지 않았으나, '右男左女'의 관념에 따라 남녀가 좌우로 구분되어 앉았으며 출입구도 남녀가 따로 분리되어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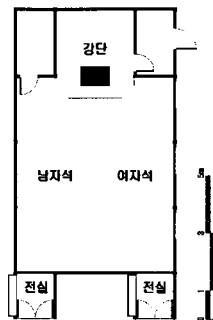
전주 만성교회와 강진 학장교회를 보면 회중석 가운데 남녀를 분리해주는 시각 차단물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출입구는 남녀가 좌우로 분리되어 있다. 또한, 각각의 출입구에는 전실이 설치되어 있어 남녀의 출입을 공간적·시각적으로 분리, 차단시켜 주고 있다. ([그림 17], [그림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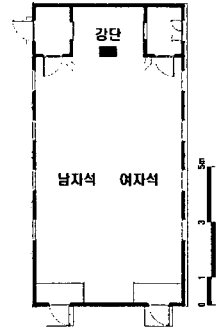
[그림 17] 전주 만성교회 평면도(1937년)



[그림 18] 강진 학장교회 평면도(1937년)



해보면 남녀가 신발을 벗는 행위들이 서로 보여도 괜찮을 정도로 유교적 관념이 약해진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남녀유별' 관념의 약화는 다음단계에 출입구가 하나로 통합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림 19] 보령 주산교회 평면도(1952년)



[그림 20] 정동제일교회 회중석 모습(1930년)
(출전 : 『자유와 빛으로 -정동제일교회 역사화보집-』, 정동제일교회, 1997)



[그림 21] 오산감리교회 교인들의 단체사진(1938년)

그런데, 좀 더 후에 지어진 보령 주산교회 평면도 [그림 19] 를 보면 남녀 출입구는 분리하고 있으나 전실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건립 당시의 시대적 배경(한국전쟁 중), 경제적인 여건, 교회의 규모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음 단계에 나타나는 평면형태(출입구의 통합)와 관련지어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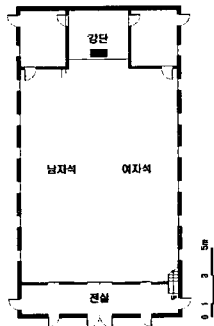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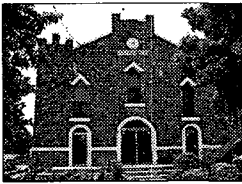
이 시기에는 남녀 회중석 사이에 시각 차단물이 설치되지 않았으나, 좌석 배치에 있어서는 '右男左女' 모습들을 볼 수 있다. [그림 20] 은 1930년도 정동제일교회의 회중석 사진인데, 강단의 오른쪽에 남자 신도들이, 왼쪽에는 여자 신도들이 앉아 있다. 또한, 교인들의 단체사진 [그림 21], [그림 22] 에서도 어른과 어린이 모두 오른쪽에 남자, 왼쪽에 여자가 서 있는 '右男左女'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 오산감리교회 어린이들의 단체사진(1946년)

3.4 유교적 경향이 약함(4단계)

시각 차단물의 철거와 남녀 출입구에 각각 설치되었던 전실이 없어짐으로 인해 ‘남녀유별’의 의미는 점차 퇴색되어 간다. 그 결과 남녀를 구분했던 두 개의 출입구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 남녀가 통합된 하나의 출입구가 나타난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右男左女’의 관념 때문에 예배당 내부의 회중석에서는 남녀가 구분되서 앉는 모습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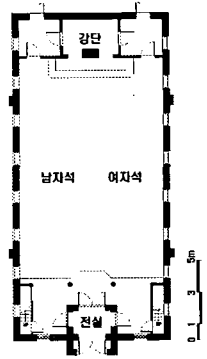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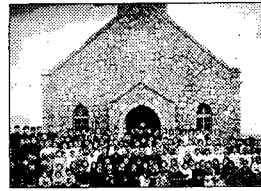


[그림 23] 나주 영산포교회 사진 및 평면도(194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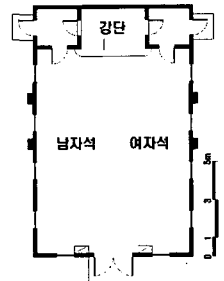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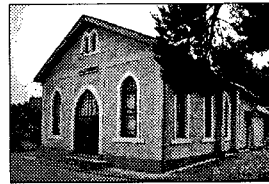
나주 영산포교회 평면도 [그림 23] 을 보면 정면에 3개의 출입구가 있는데, 중앙에 한 개의 넓은 출입구와 양측에 두 개의 좁은 출입구가 있다. 이것은 ‘남녀유별’의 상징적 형태였던 두 개의 출입구 모습이 사라지고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남녀구분이 없는 한 개의 통합된 출입구가 나타나기 이전의 과도기적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의 넓은 출입구는 주출입구로서 남자와 여자들이 함께 이곳을 통하여 출입하고, 양측의 좁은 출입구는 부출입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오산감리교회와 김천 송천교회의 경우에는 정면 중앙에 한 개의 출입구만 설치되어 있다. ([그림 24], [그림 25]) 하나의 문을 통해 남자와

와 여자는 함께 출입하게 된다. 이러한 남녀 출입구의 통합은 개신교의 ‘남녀평등’ 사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초기 개신교 교회건축의 평면형태를 지배했던 유교적 ‘남녀유별’ 관념의 쇠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4] 오산감리교회 사진 및 평면도(1954년)



[그림 25] 김천 송천교회 사진 및 평면도(1959년)



[그림 26] 여자 회중석의 예배모습(1955년)
(출전 : 『사진으로 보는 연동교회 110년사』, 연동교회, 2004)

그러나, 이 시기에도 회중석의 좌석배치에서는 ‘右男左女’의 관념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24] 의 사진을 보면 오른쪽에 남자가, 왼쪽에 여자가 서 있으며, 평면도를 보면 주출입구에 들어서면 전실이 있고, 전실 좌우측에 회중석으로 들어가는 문이 남자와 여자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시기의 연동교회 여자석 모습 [그림 26] 을 보면 남녀가 구분되서 예배를 드

렀다는 것과, 여자석 오른쪽 벽에 창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강단의 왼쪽에 여자가 앉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7] ㉞, ㉟에서도 ‘右男左女’ 관념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그림 27] ㉟에서 몇 명밖에 없는 남자들이 앉아 있는 강단 오른쪽에 빈 좌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강단 왼쪽에 많은 여자들이 빈틈없이 앉아 있는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㉞



㉟

[그림 27] ㉞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모습(1965년)

㉟ 어른들의 예배 모습(1966년)

(출전 : 『광주제일교회90년사』, 광주제일교회, 1994년)

3.5 유교적 관념이 영향을 미치지 못함(5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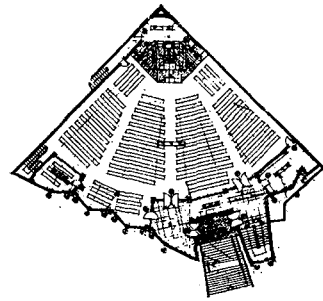
이 단계는, 4단계까지 개신교 교회건축의 평면형태를 결정짓는데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남녀유별’ 관념은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고, ‘남녀유별’의 상징적 평면형태로 볼 수 있는 장방형 평면 이외에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평면형태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예배 모습에서도 ‘남녀유별’ 관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시기의 한국 사회는 본격적인 현대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전근대적인 모습을 탈피하고, 공업기술의 발전, 경제부흥 등으로 인해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건축분야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영향으로 건축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대형건축이 나타나고, 외국의 선진건축을 경험한 건축가들에 의해 다양화된 현대적 건축이 등장하게 된다.

개신교 교회건축 또한 경제성장과 급속한 교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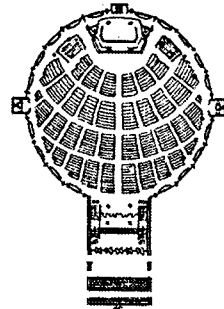
증가로 대형화되고, 예배의 기능뿐 아니라 다변화된 사회적 기능들을 수용하기 위해 부채형, 원형, 정방형, 타원형 등 다양한 평면형태가 등장한다. 즉, 이 단계는 교회건축의 평면형태가 ‘남녀유별’ 관념보다는 사회적·경제적·기술적 요인들과 외국건축의 영향을 받는 시기이다.

[그림 28] 부터 [그림 31]까지는 장방형 평면 이외에 이 시기에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평면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회중석의 좌석배치는 이전 단계의 장방형 평면에서처럼 모두 강단과 주출입구를 연결하는 축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적인 배치형태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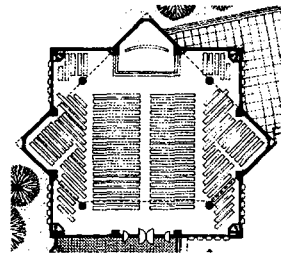
[그림 28] 충신동교회 평면도(1970년)

(출전 : 『건축사』, 1970년 6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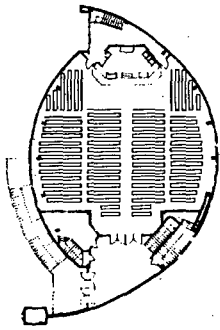
[그림 29] 여의도 순복음교회 평면도(1971년)

(출전 : 임광성, 「한국 현대 개신교회건축의 예배공간 평면특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2002)



[그림 30] 정동제일감리교회 평면도(197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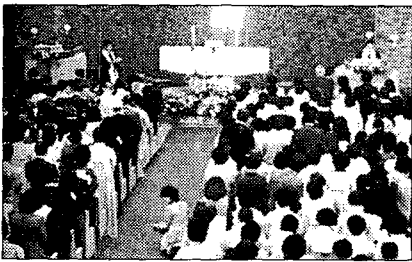
(출전 : 『건축사』, 1979년 8월호)



[그림 31] 산성교회 평면도(1980년)
(출전 : 『건축사』, 1982년 5월호)



[그림 32] 제일교회창립70주년 기념예배(1975년)
(출전 : 『광주제일교회90년사』, 광주제일교회, 1994)



[그림 33] 100주년기념예배당몽헌예배(1979년)
(출전 : 『자유와 빛으로 -정동제일교회 역사화보집-』, 정동제일교회, 1997)

그러나, 회중석의 이러한 좌우대칭 배치는 이전단계의 장방형 평면에서처럼 유교적 ‘남녀유별’ 관념의 영향이 아닌 예배의식에 따른 좌석배치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그림 32]와 [그림 33]을 보면 이전단계에서 나타났던 완전한 ‘右男左女’의 모습은 사라지고 남녀가 섞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이러한 회중석의 예배모습은 좌석배치에서 ‘남녀유별’의 영향이 사라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3.6 소결

이상과 같이 한국 개신교 교회건축의 평면형태가 유교적 ‘남녀유별’ 관념 변화에 따라 5단계로 변천되

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고, [표 3]으로 정리하였다.

1단계는 유교적 ‘남녀유별’ 관념에 따라 남녀가 따로 예배를 드리던 시기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같은 공간을 사용하되 서로 다른 시간에 예배를 드렸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한쪽을 사용하던 선교사의 사택에서 예배를 드렸으며, 예배당 평면형태는 ‘一’자 형태를 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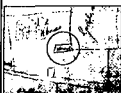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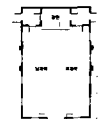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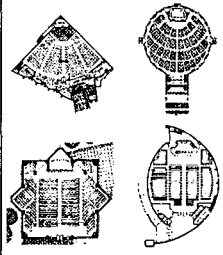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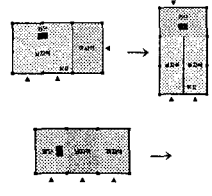
2단계는 예배당으로 사용하던 집을 개조하거나 더 큰 예배당을 지어 남녀가 같은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처음에는 강단에 가까운 예배당 앞쪽에 남자가 앉고 여자가 뒤쪽에 앉았는데, 이러한 모습은 앞쪽을 뒤쪽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이며, ‘남존여비’ 사상의 결과였다. 이때의 평면형태는 ‘一’자형 내지는 장방형 평면을 취하였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남녀가 서로를 볼 수 있었는데, 이것은 ‘남녀유별’이라는 당시의 사회적 관념에 어긋난 모습이였다. 때문에, 남녀를 좌우로 구분하고 서로 보이지 않도록 남녀 회중석 사이에 시각 차단물을 설치하는 장방형 평면형태가 나타났으며, 출입구도 남녀가 구분되었다.

이후, 신도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더 큰 규모의 예배당이 필요하게 되는데, 신축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증축을 택하게 된다. 평면형태는 ‘남녀유별’ 관념을 적용하기 쉽고 전통민가에서 사용하던 친숙한 형태인 ‘ㄱ’자형태로 증축하게 된다.

이러한 모습들은 당시의 사회적 규범이었던 ‘남녀유별·남존여비’ 사상이 철저하게 적용된 건축적 표현들이었으며, 개신교의 ‘남녀평등’ 사상이 전파되면서 이러한 유교적 관념들은 조금씩 약화되기 시작하고, 그 영향은 교회건축의 평면형태에도 나타나게 된다. 또한, 회중석의 남녀 좌석위치를 보면 남자는 강단의 오른쪽, 여자는 왼쪽에 앉는 ‘右男左女’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유교적 관념이 아니며 오른쪽을 중요시하는 개신교의 방위 위계 관념이 적용된 것이다.

3단계는 ‘남녀유별’ 관념이 점차 쇠퇴하면서 남녀 회중석 사이에 설치됐던 시각 차단물이 사라지는 단계이다. 이러한 시각 차단물의 철거는 ‘ㄱ’자형 평면의 존재의미를 퇴색시키면서, 예배의식에 부합되고 건축적으로 좀 더 편리한 ‘장방형’ 평면형태가 다시 나타나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의 역할을 하게 된다.

[표 3] '남녀유별' 관념 변화에 따른 개신교 교회건축 평면형태의 5단계 변천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평면형태		'ㄱ'자형 평면 ↑ 장방형 평면 (장변진입) → 단변진입 ↑ '-'자평면					
							
변천요소	남녀 회중석	공간 또는 시간 분리	앞뒤구분 → 좌우구분		좌우구분	좌우구분	남녀구분 無
	시각 차단물	-	無 → 有		無	無	無
	출입구 구분	-	남녀구분		남녀구분	無	無
특징	· 남녀, 따로 예배드림	· 남녀, 함께 예배드림 · 시각차단물 설치 · '右男左女' 좌석배치 · 'ㄱ'자형 → 장방형 → 'ㄱ'자형 평면		· 시각차단물 사라짐 · 장방형 평면	· 출입구 통합 · 장방형 평면	· '右男左女' 좌석배치 사라짐 · 다양한 평면형태 등장	

이 시기에 지어진 장방형 평면형태의 교회건축을 보면, 남녀 회중석 사이에는 시각 차단물이 설치되지 않았으나 남녀가 좌우로 구분되지 않았으며, 역시 '右男左女'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출입구도 남녀가 구분되었다.

4단계는 남녀가 구분됐던 출입구가 하나로 통합되는 단계이다. 그러나, 회중석에서는 오래된 '남녀유별'의 관념 때문에 남녀가 좌우로 구분되어 '右男左女'의 모습을 보여준다.

5단계는 교회건축의 평면형태를 결정짓는데 '남녀유별' 관념이 아닌 사회적·경제적·기술적 요인들과 외국건축의 영향을 받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남녀유별' 관념이 사라지면서, '남녀유별'의 상징적 평면형태였던 장방형 평면 이외에 부채형, 원형, 정방형, 타원형 등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평면형태가 등장하고, 회중석에서는 남녀가 구분되지 않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

4. 결론

폴 틸리히가 '종교의 형식은 문화이며, 교회생활의 형식은 문화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한 것

은 '교회는 문화의 한 부분'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변화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는 교회의 모습에 변화를 주게 된다.

개신교가 전래될 당시, 한국 사회는 유교의 '남녀유별·남존여비' 사상에 의해 지배되는 유교적 문화사회였다. 이러한 유교문화 속에 수용된 개신교는 '유교적 문화'의 시각으로 이해됐으며, 교회건축에도 당시의 문화와 사상이 묻어나 있었다. 특히, '남녀유별' 사상은 개신교 교회건축의 평면형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개신교의 사상은 유교적 '남녀유별' 사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문화체계 즉, 개신교와 유교의 접촉으로 문화요소가 전파되고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만의 독특한 양식의 교회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신교 교회건축의 평면형태가 변천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평면형태에 적용된 '남녀유별' 관념의 변화정도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같은 5단계의 변천과정은 유교적 문화사회에 이질적 문화인 개신교가 수용되면서, 개신교 사상의 전파가 유교적 관념 특히, '남녀유별' 관념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으며, 이러한 관념의 변화는 개신교의 예배모습과 교회형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

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또한, 남녀가 좌우로 구분해서 앉을 때는 '右男左女' 관념에 따라 남자는 강단의 오른쪽에, 여자는 왼쪽에 앉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모습은 유교적 방위 관념이 아니라 오른쪽을 중요시 하는 개신교의 좌우 위계 관념이 적용된 것이다.

참고문헌

- Paul Tillich, *Theology of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 김동길, 「한국의 전통종교와 기독교의 미래」, 『현대종교』, 현대종교문제연구소, 1982
- 유동식, 『한국 종교와 기독교』, 대한기독교서회, 1986
- 정종균, 「유교가 한국 개신교 신앙에 끼친 영향」, 장로회신학대 석사논문, 1994
- 한상복 외 2인, 『문화인류학』, 한국방송대학출판부, 1983
- 임광성, 「한국 현대 개신교회건축의 예배공간 평면특성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2002
- 홍순명, 「한국개신교 교회건축의 유형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박사논문, 1991
- 김성한, 「개신교 교회건축의 변천과정과 한국 개신교 교회건축의 특징」, 서울대 석사논문, 1988
- 이명관, 「'ㄱ'자형 교회건축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제7권 4호, 한국건축역사학회, 1998년 12월 ; 「'ㄱ'자형 교회건축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1999
- 정창원, 「한국미션건축에 있어서 개신교 개척선교사의 활동과 영향에 관한 연구 -(1) 그레함 리의 건축활동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제13권 2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04년 6월 ; 「'ㄱ'자형 교회건축의 탄생기원과 전개양상에 관한 역사적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제20권 11호, 대한건축학회, 2004년 11월
- 남동원, 『주역해의Ⅲ-서괘전·계사상전·계사하전·설괘전·잡괘전』, 나남출판, 2001
- 昭惠王后 韓氏, 『內訓』, 육완정 역, 설화당, 1986
- 송시열, 『우암선생 계녀서』, 정음사, 1986
- 주희, 『주자가례』, 임민혁 역, 예문서원, 1999
- 김석진, 『(大山)周易講解(上經)』, 대유학당, 1994
- 이회학,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행동 - 창세기1-11장의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2003
- 벨엘예배당 발전위원회 편, 『하늘 사명의 전당, 벨엘예배당 -정동제일교회 문화재예배당 수리보고서-』, 정동제일교회, 2002
- 윤경로, 『새문안교회100년사(1887-1987)』, 새문안교회 역사편찬위원회, 1995
- 고춘섭 편, 『연동교회100년사』, 연동교회, 1995
- 정시춘, 『교회건축의 이해』, 발언, 2000
- 『자유와 빛으로 -정동제일교회 역사화보집-』, 정동제일교회, 1997
- 『사진으로 보는 연동교회110년사』, 연동교회, 2004
- 한영제 편, 『두고 온 교회, 돌아 갈 고향 -북한교회 역사 자료전-』, 한들출판사, 2003
-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97
- 김응호 편, 『한국장로교100년』, 목양사, 1984
- 전주서문교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편, 『전주서문교회 100년사』, 전주서문교회, 1999
- 광주제일교회 역사편찬위원회 편, 『광주제일교회90년사』, 광주제일교회, 1994
- 광주제일교회 역사관 홈페이지
<http://www.motherchurch.or.kr/museum/>
-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1970년 6월호 ; 1979년 8월호 ; 1982년 5월호
- 배위량 편, 『神學指南』 제7권 제4호, 장로회신학교교수회, 1925
- 김대인, 『숨겨진 한국교회사』, 한들, 1995
- 성경 검색 <http://www.holybible.or.kr/>

A Study on the Changes of the Plan Type of Protestant Church Architecture in Korea

- Focu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exes(男女有別)
and the seat position of the sexes -

Lee, Hee-Jun

(Ph.D. Candidate, Sungkyunkwan University)

Yoon, In-Suk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The plan type of Korean protestant church architecture underwent changes as following five stages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exes.

First stage - At the beginning of missionary work in Korea, Koreans generally worshiped in missionary houses which were traditional Korean styles. The plan type of these houses was a simple "—" figure. At that time, men and women worshiped separately because of the idea of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exes. They either worshiped in different places at the same time or in the same place at the different time.

Second stage - At this stage, men and women started to worship together in the same place. At the beginning of this stage, men sat in the front of the chapel on a rostrum, and women sat behind the men. The plan type of the chapel was a simple "—" or a rectangular figure. Later, they sat separately on the right and left side. There are the visual interceptions which were set up between them. As the number of church members increased rapidly, a new type of church architecture appeared. It was a '⌋' figure. At that time the entrances were separated by the sexes.

Third stage - At this stage, the visual interceptions disappeared as the idea of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exes became weak. As new churches had been constructed by the plan type of rectangular figure, the visual interceptions weren't set up anymore.

Fourth stage - At this stage, the separated entrances were unified as one. But the arrangement of their seats didn't change because of the old idea of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exes.

Fifth stage - In the final stage, the plan type of the church architecture was not determined by the idea of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exes but social, economical, technological facts and the influence of the foreign architecture. At this stage, new and various kinds of the plan type appeared such as the fan, round, squared, or oval figure as well as the rectangular figure. Men and women were not classified anymore. They started to sit and worship together in the same place.

Also, when men and women sat separately from side to side because of the idea of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exes, men sat on the right and women sat on the left side of rostrum. It didn't applied Confucian ideas but the idea of protestant church; protestant churches have the idea that the right side is more important but it does not in Confucianism.

keywords : Korean protestant church architecture, plan type, visual interception, distinction between the sexes(男女有別), right-men · left-women(右男左女)
